

# 광양시, 광양관광 틈새 발전전략 논의

### 제2기 광양관광진흥위 회의 통해 내년 전략 고민 '고품격·안전·신뢰' 지향 관광상품 개발·홍보 집중

광양시는 최근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광양관광진흥위원회(위원장 김명원 부시장) 회의를 통해 내년도 주요 관광정책과 코로나 대응전략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명원 관광부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제2기 15명 위원 위촉식을 갖고 민선7기 주요성과와 2021년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과 주요 추진계획을 이화엽 관광과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민선7기 주요 성과로 관광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삼고 권역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확산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꼽았다.

구체적 성과로는 지난해 '광양관광도약 원년' 선포와 시민과 함께 관광도시 표방,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으로 관광정책 체계적 추진동력 마련, 관광협의회 설립과 관광협업센터 건립 등 민관 관광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또한, 민선7기 5대 핵심 공약사업인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단계별 착공과 해오름육교 준

공, 광양관광 브랜드 슬로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개발, 포스트 코로나 관광환경에 맞춘 로컬 상품 개발 등도 포함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코로나 대응 디지털 뉴딜 관광 융합사업 발굴, 관광기반시설 조속 확충,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지원, 뉴노멀 시대 '고품격, 안전, 신뢰'를 지향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언택트 홍보 마케팅 집중 등을 담았다.

디지털 뉴딜 관광 융합사업은 '광양 디지털 헤리티지 관광콘텐츠 개발', '공공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 플랫폼 구축', '낮과 밤이 빛나는 미디어아트 월 조성' 등을 추진해 코로나 시대 비대면 관광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로 했다.

핵심 관광기반 시설인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광양해비치로 5대 교량과 해변을 연결하는 야간경관조명이 올해 말 완성되고, 해비치로 수변의 공유수면을 확장해 여가·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달빛해변'이 본격 추진된다.



LF 네트워크에서 시행하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 도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섬진강변 망덕포구의 망덕산-배알도수변공원을 연결하는 짚트랙과 배알도 관광형 섬정원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속속 채워질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광시설 개발과 함께 코로나19 등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언택트 뉴미디어 마케팅 등 광양관광 브랜드를 위한 온·오프 전방위 홍보 마케팅도 집중한다.

특히, 지난 10월 16일 출범한 광양시관광협의회, 테마여행10선사업단, 관광두레사업단 등 민간 주도

DMO(지역관광추진조직) 활동을 적극 지원해 광양관광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여행자가 이종원 위원은 "광양은 빛의 고장으로 코로나 시대 최적화된 곳이다"며, "유당공원과 광양을 5일시장 연계, 김과 불고기를 활용한 음식 개발, 옥동사지 도선국사 역사 활용, 백운산 숲 홍보 강화 등 관광만의 매력과 가치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마케팅연구소 대표 이호열 위원은 "지역 주도 관광거버넌스 기구인 관광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민간 주도형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로 지속가능 관광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고흥군4-H회, 전국 석권

### '제22회 한국4-H대상' 등 3개 대회 수상

고흥군은 최근 한국4-H본부 주관하는 '제22회 한국4-H대상'과 '제8회 전국 4-H지도교사 현장연구대회'에서 각각 본상과 대상, '제14회 전국 학생4-H 과제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한국4-H대상'은 4-H활동이 우수한 학교4-H회, 4-H회원 및 4-H지도자 등을 선발하여 창의적 사고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의 체계적 발굴·육성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이다.

전라남도4-H연합회 전공수 수석부회장(고흥군4-H연합회 58, 59 대 회장, 포두면)은 청년4-H회의 발전과 더불어 학교4-H회 육성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4-H대상' 본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제8회 전국 4-H지도교사 현장연구대회'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의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4-H지도교사와 학생4-H회원



이 함께 연구하며 현장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승하 4-H지도교사는 풍남초등학교4-H회원들과 함께 '3D프린터를 활용한 플래테리아 활용하기'를 현장연구하여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4-H회는 농업과 농촌을 부흥시키는 농업인단체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단체로 변화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청년이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여수시, 관내 중학생 3D모델링 프로젝트

여수시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협력단과 함께 드론과 3D모델링 등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3D모델링 여수 섬 전경도 프로젝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1일까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및 여수시 일대에서 우리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팀을 구성해 매주 토요일, 주행로보실행, 자체 개발 어플을 이용한 섬 박람회 개최지 견학과

드론 항공촬영, UCC 제작 등에 참여하고, 12월에는 여수시청 1층 현관에 전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내년부터는 '에듀테크, 여수미래학교'를 추진해 미래기술 체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시 신영자 교육지원과장은 "드론과 3D 모델링 등을 활용한 여수 섬 전경도 프로젝트와 전시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順天 희망의 빛 프로젝트전(展)' 내일까지 국회서 전시회 개최

순천 출향 작가들 프로젝트전

순천시가 주최하고 (사)순천에총이 주관하는 '順天, 희망의 빛 프로젝트전'이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흥경수 순천에총회장이 기획하고 장안순 순천에총사무처장이 큐레이팅 및 총괄 진행을 맡았다.

또 희망의 빛으로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주제로 순천지역작가 38명의 회화분야(한국화, 서양화) 작품과 순천 출향작가 12명의 작품 총 50점이 전시됐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순천에총 흥경수 회장은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음과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게 하고, 작품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승화되어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보성군, 람사르습지 벌교 갯벌 보전 노력

무인도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보성군 벌교읍은 지난 10월30일 장도 일원에서 고흥·보성환경연합 회원과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50여명이 함께 무인도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고흥보성환경연합에서 '지구를 위한 파타고니아 1% 기금'을 후원받아 진행됐다.

이날 고흥·보성환경연합(의장 박희철) 회원들과 벌교읍 직원들은 무인도 섬인 벌교읍 장도리 효도 연안에서 파도에 밀려온 폐어구와 생활쓰레기, 낚시꾼과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 각종 해양쓰레기 3톤을 수거했다.

급변하는 바다 날씨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봉사자들은 습지보호지역과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정정 벌교갯벌을 보전하고자 구슬땀을 흘렸다.

보성=김택순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